

#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Parental Value Orientation, Morality and Discipline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Civism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강사 강 완 숙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

Lecturer : Wan-Sook Kang

###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familial influence on adolescent's civism. For this purpose, data were obtained from 177 male and female freshmen and sophomores at universities in Seoul and Incheon and analyzed with correlation,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parents' education and family living had no significant relations to adolescent's civism.
- 2) Parents and adolescent interaction had indirect influence on adolescent's civism through parents' morality and discipline.
- 3) Parents' morality, materialistic value orientation and discipline about community norms had influences on adolescent's civism in descending order. These independent variables explained 20.5 % of the total variance.

### I. 문제제기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나 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그 주요 원인의 하나로 흔히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이나 범죄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통념 혹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열거한 뒤 이러한 행위를 얼마나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소년원이나 기타 교정 시설에 수

용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각 이러한 비행이나 범죄에 관련된 가정적 요인으로서 빈곤, 부모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 결손, 부모의 교육수준,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결함, 낮은 가족의 응집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김준호, 1994; 노성호, 1986; 민하영, 1991; 박성수, 1991;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1989; 양정국, 1987; 이동원, 1997; 이윤호, 1991; 이태원, 1991; 임용우, 1984; 장상희, 1992; 전광문, 1991; 정유미·김득성, 1998; 최규련, 1996).

즉 그간의 연구의 초점은 청소년의 행동에 있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규범적 행위보다는 일탈적·범죄적 행위에,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함께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 주로 사회화의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곧 청소년의 사회화에 가정 혹은 부모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부모의 사회화 방법에 대한 이러한 논의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먼저 청소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을 얼마나 내면화하여 시민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느냐 하는 시민적 자질에 대한 것과, 부모는 청소년에게 그러한 규범을 과연 얼마나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사회화의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규범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 강제 즉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환경적 영향을 논의로 하면 공동체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자율적 통제 곧 시민적 자질의 함양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한편 이러한 규범의 내면화 과정 곧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화 기능에 있어서는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사회화의 방법 뿐 아니라 부모가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적 규범을 과연 얼마나 전

달하는가 하는 사회화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각기 다른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문화란 곧 그 특정분야에 대한 대다수의 비전문화를 의미하므로 각 분야의 유기적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전문가는 다수의 비전문가가 관련된 분야를 책임지게 되는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때 그 사회적 결과도 중요할 뿐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서는 쉽게 발견되고 규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임희섭, 1986: 177-186). 그러므로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공동체 규범에 합의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 사회로 진출하여 시민의 일원으로서 각 분야를 책임지게 된 청소년들이 더불어 삶의 최소한의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못지 않게 큰 중요성을 갖는다.

청소년기에는 모래집단이나 학교, 기타 사회 문화적 영향이 증대되기는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청소년들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적합한 행위유형을 학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유영주·이순형, 1990; 장상희, 1992; 차경수, 1993).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과정 중 사회질서의 준수와 공익의 존중,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수행 등 사회적 영역의 발달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유안진·김연진, 1990; 윤진, 1992; 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7). 사회화의 담당자로서 부모는 언어로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격려함으로써, 또한 중요한 타자로서 보방과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 올바른 행동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공동체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Bandura, 1977; Perry & Bussey, 1984; Dishon et al., 1984).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도덕성 및 공익

성의 빈곤으로 인한 윤리적 황폐화 현상이며 청소년의 윤리적 해이도 예외는 아니다(박종주·김성관·손충기·심대섭, 1992).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행동양식 중에서 두드러지는 부정적 특징으로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개인주의로서의 이기적 행동양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도구주의적, 편법주의적 행동양식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임희섭, 1995: 237-250), 이러한 행동양식은 지금 당장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결국 사회의 통합성을 저하시키고 공동체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를 무규범 상태로 전락 중이라고 진단한 한 논자는 그 주원인으로서 참된 가정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다. 즉 참된 사회적 규범을 실천해 보인 가정은 적었고 대신 갈등, 경쟁, 출세, 편의주의, 배급주의, 한탕주의 등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가르친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점에 대한 각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장현섭, 1995). 사회체제의 구조적인 결함을 제외한 채 모든 문제의 근원이 가정교육의 부재 탓이라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고, 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화의 대행자'인 가족이나 부모가 왜곡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회화 담당자로서의 가족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불과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사회구조적 변동을 거치면서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의 축적과 과소비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물질적 성공주의가 구성원의 공통된 가치지향으로 자리잡았고(이길홍, 1990; 임희섭, 1995; 전병재, 1990).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한 입신양명이라는 전통적인 출세주의적, 도구주의적 교육관과 가족단위 생존전략의 왜곡된 형태인 배타적인 가족 이기주의가 자녀에 대한 지식위주, 입시위주의 과열된 교육열로 집약되어 표출되었다(공미혜, 1992; 옥선화, 1989; 이미숙, 1993; 임희섭, 1986).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약화된 규범의

식과 혼란된 가치관 및 행동양식이 자녀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새로운 시민사회에 걸맞는 사회규범과 건전한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은 극도로 위축된 반면 무조건적인 적자생존 의식만을 고취시키는 성취압력은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김재은, 1994; 이성호, 1996; 이효재, 1994; 장현섭, 1994; 정희경, 1986; 지영숙, 1991). 실제로 몇몇 외국과의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게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이것은 현재 가정교육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의식이나 시민적 자질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이미숙, 1995),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조차 수치심이나 죄의식 없이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향조차 나타나는 것(임희섭, 1995: 187-200)이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사랑과 교육은 자녀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중국에는 공동체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해가 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된다(신용하·장경섭, 1996; 장경섭, 1993). 따라서 오늘의 한국의 가정교육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녀가 공동체적 규범을 내면화하여 책임있고 자율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원론적, 당위론적 수준의 담론에 그쳤을 뿐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생활정도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 및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과 같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적 요

인과 함께, 현대 한국 가족의 문제로 지적되는 물질주의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성취압력, 사회적 연대의 결여 등 가족의 가치지향적 요인, 그리고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및 행동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의 도덕성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한 이들 요인 중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이러한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공동체 규범을 내면화하여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요약하여 연구문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생활정도 등 사회 경제적 요인과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응집성)은 가족의 가치지향,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및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의 가치지향(물질주의·성취압력·사회적 연대)과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및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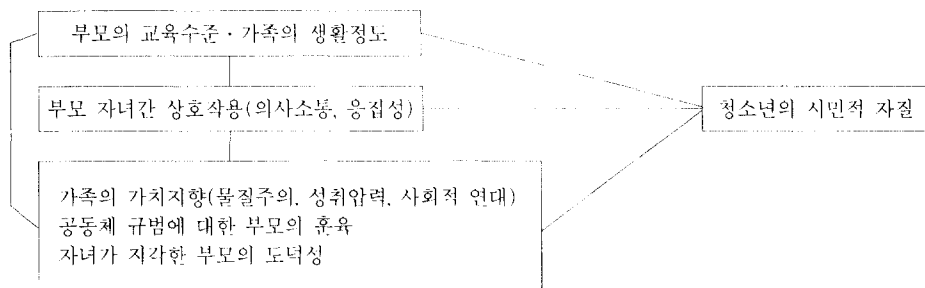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서울과 인천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1997년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부나 모가 사망한 경우와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17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6세이고 전공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계열 등으로 다양하였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사회 경제적 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정도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명료성 및 가족원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응집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가족의 가치지향 중 물질주의는 삶의 우선적 목표를 물질적 가치의 추구에 두는 것으로, 성취압력은 자녀에게 능력 이상의 기대를 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을 강조하는



<연구모형>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N=177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	41	23.2	부의학력	중졸이하	18	10.2	생활정도	하	3	1.7
	여	136	76.8		고졸	87	49.2		중하	25	14.1
연령	19세이하	121	68.4	대졸이상	72	40.7	중		108	61.0	
	20세이상	56	31.6	모의학력	중졸이상	55	31.1	중상	39	22.0	
학년	1학년	133	75.1	고졸	93	52.5	상	2	1.1		
	2학년	44	24.9	대졸이상	29	16.4					

것으로, 사회적 연대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 정도로 정의하였다.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은 정직과 약속의 준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약자 보호, 공공 장소의 청결한 사용 등을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강조하는가로, 행동모델로서의 부모의 도덕성은 원칙의 준수, 정직, 언행일치 정도로,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은 정직과 약속준수, 공공질서의 준중, 이타적 행동의 실천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사소통과 응집성, 물질주의와 성취압력은 선행연구(이재창·최운실·정영애, 1983; 정원식, 1987; Olson, et al., 1982)에서 사용된 척도 중 변별력이 높은 문항을 선택하여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였고, 가족의 사회적 연대,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시민적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 평가는 관련문헌(고범서, 1992; 장현섭, 1995;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1;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2; Tesson, et al., 1990)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작성하고 아동학 전공자 3인으로부터 내용 타당성을 검증 받아 수정하였으며, 다시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성은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를 구하여 검증한 결과 .8061에서 .5423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강병서·김계수, 1997). 각 문항의 응답에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정말 그렇다' =4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척도의 하위 문항과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 3. 자료분석

척도의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equamax rotation)을 하였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와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é 검증을 하였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공선성 검사(Tolerance)와 잔차의 독립성 검사(Durbin-Watson test)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논의

### 1. 부모의 교육 수준, 가족의 생활정도 및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과 가족의 가치지향,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및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의 관계

#### 1) 부모의 교육수준과 변수들과의 관계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연대와 부적 상관성이 있다(〈표 3〉). 이것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표 4〉에서 보듯이 주로 부모의 학력이 대학졸업 이상인 가족에서 두드러진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그밖에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이나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 부모의 성취압력, 공동체

〈표 2〉 척도의 구성 및 타당도와 신뢰도

	문항	요인								$\alpha$
		I	II	III	IV	V	VI	VII	VIII	
의사소통	대화 노력	.199	.271	.759	-.210	.120	.007	.054	-.019	.8061
	이해 정도	.380	.089	.634	-.130	.140	-.015	.017	-.071	
	고민 상담	.243	.062	.733	-.116	.223	.004	.089	-.016	
가족 응집성	상호 도움	.752	.068	.133	-.031	.077	-.141	.088	-.122	.7727
	서로 상의	.677	.078	.362	.024	.006	-.026	.005	.104	
	친밀감	.738	.045	.358	-.017	.055	.033	.237	-.130	
물질주의	고소득 직업	-.168	-.136	.128	.183	.088	.206	-.016	-.038	.5725
	물질우선 삶	-.074	-.007	.065	.137	-.205	.767	-.006	-.042	
	물질 보상	.252	-.036	-.125	-.098	.003	.519	-.155	-.011	
성취압력	벽찬 일	-.046	.168	-.119	.736	-.048	.024	.173	-.013	.7355
	경쟁 압력	.089	-.009	-.074	.829	-.063	.165	-.109	-.012	
	과잉 기대	.011	-.025	-.010	.791	.022	.135	-.126	-.016	
사회적 연대	관심	.114	-.154	-.031	.040	.389	-.118	.006	-.108	.5423
	어웃 돕기	.215	.122	.073	-.091	-.090	-.033	.749	.201	
부모의 도덕성	언행 일치	.453	.079	.101	-.225	.504	-.007	.004	-.188	.6293
	원칙 준수	-.048	-.019	.201	.047	.721	-.057	.004	.170	
	성직	.204	.239	.113	-.220	.621	-.080	-.047	.161	
부모의 훈육	다인 배려	.041	.628	.014	.124	.419	.001	.008	-.108	.7358
	약속 이행	.000	.711	.229	.006	.157	-.005	-.021	.126	
	약자 보호	-.054	.539	.140	-.025	-.059	.024	.529	.086	
	공공 질서	.274	.507	-.183	-.124	.101	-.013	.280	.187	
	정직	.081	.535	.199	-.064	.439	-.154	.235	.073	
갈뵈 지적	.057	.650	.166	.022	.015	-.075	.092	.048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	정직	-.003	-.237	.367	-.001	.136	-.474	.051	.584	.6413
	약속 준수	.008	-.047	-.147	.019	.175	-.064	-.089	.717	
	공공 질서	-.051	.149	-.075	-.076	.130	-.009	.104	.686	
	공공 장소 이타 행동	.111	-.006	.007	.061	.054	-.003	-.002	.689	
		-.173	.163	.020	-.045	.052	.088	.367	.607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서, 부모의 교육정도가 청소년이 규범을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장상희(1992: 13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부모 세대가 경험한 교육이 경쟁과 개인의 출세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전인교육이나 시민사회에 걸맞은 도덕적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임희섭, 1986: 8-19; 장현섭, 1995: 451-453).

## 2) 가족의 생활정도와 변수들과의 관계

가족의 생활정도는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정적 상관이다. 즉 가족의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고소득 직업을 선호하고 삶의 우선적 목표를 물질적 가치의 추구에 두며 자녀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고, 또한 자녀에게 능력 이상의 성취를 기대하고 경쟁에서 남보다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부의 학력	모의 학력	생활 정도	의사 소통	가족 응집성	가족의 물질주의	부모의 성취압력	가족의 사회적연대	부모의 훈육	부모의 도덕성
모의 학력	.650**									
생활정도	.311**	.340**								
의사소통	.022	.027	-.064							
가족 응집성	-.142	-.115	-.060	.496**						
가족의 물질주의	-.042	.108	.161*	-.001	-.055					
부모의 성취압력	.090	.128	.198**	-.201**	-.113	.193*				
가족의 사회적연대	-.229**	-.160*	-.050	.182*	.304**	-.165*	-.084			
부모의 훈육	-.023	-.050	-.044	.310**	.327**	-.151*	-.021	.326**		
부모의 도덕성	.132	.107	-.049	.403**	.402**	-.182*	-.199**	.241**	.412**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	-.063	-.114	-.107	.067	.122	-.292**	-.073	.208**	.320**	.355**

\*P < .05 \*\*P < .01

<표 4>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의 사회적 연대 차이

부의 교육수준	n	사회적 연대	F	모의 교육수준	n	사회적 연대	F
중졸이하	18	6.0000a	4.776**	중졸이하	55	5.5926a	5.878**
고졸	87	5.6744a		고졸	93	5.7033a	
대졸 이상	72	5.2571b		대졸 이상	29	4.9310b	

\*\*P < .01

앞설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표 5>에서 보듯이 주로 생활정도가 중상 이상인 가족과 중 이하에 속하는 가족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가족의 생활정도는 그밖에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이나 가족의 사회적 연대,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부모의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 여유가 있는 계층일수록 천민 자본주의적 처부와 물신숭배를 조장하고 자녀에게 경쟁에서 이길 것을 요구하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은 하지 않으며(이효재, 1994: 7), 또한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한국의 중간층 혹은 중산층은 지위 공황 상태(status panic)에 이를 정도의 치열한 상향 이동의 열망과 경쟁의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욕망을 적절하게 규제해 나갈 뚜렷한 가치관이나 시민윤리와 규범은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송복, 1991: 241-242; 임희섭,

<표 5>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의 물질주의 가치지향 및 부모의 성취압력 차이

생활정도	n	물질주의	t	성취압력	t
중 이하	136	6.1544	-2.367*	7.6222	-2.381*
중상 이상	41	6.8000		8.3902	

\*P < .05

1995: 144-145)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3)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과 변수들과의 관계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은 가족의 사회적 연대,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나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관계가 없다. 즉 부모 자녀간에 개방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구성원간의 유대가 돈독한 가족일수록 이웃에 관심과 필요한 도움을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공동체의 규범

을 잘 전달하며,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의 도덕성을 높게 인식한다. 그러나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은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자녀 관계가 원만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곧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가족은 구성원들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며 특히 부모 자녀간에는 헌신과 사랑, 보호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강력한 가족원 간의 유대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중심적인 태도가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연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타적인 가족지향성을 조장하는 일면이 있으며(신용하·장경섭, 1996:208-213), 청소년들의 독립심과 책임감 형성 및 사회적 성숙을 방해하기도 한다(이동원, 1988:35-49; 차경수, 1993:11-12)는 지적은 청소년이 사회 규범을 내면화 하는 데는 부모 자녀간의 원만한 관계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연대와 부적 상관이 있고 가족의 생활정도는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정적 상관이 있으나,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수는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이나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관계가 없다.

둘째,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나 가족의 응집성 등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수는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및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나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2. 가족의 가치지향과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및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의 관계

### 1)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과 변수들과의 관계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은 부모의 성취압력

과는 정적 상관이 있고 가족의 사회적 연대 및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 즉 물질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족일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경쟁에서 앞설 것과 능력 이상의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은 잘 전달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원조도 적다. 또한 이러한 가족일수록 청소년들은 부모의 도덕성과 자신의 시민적 자질도 낮게 평가한다.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강조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는 사회의 통합을 약화시키고 무규범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Merton, 1959; Orm, 1987; 임희섭 역, 1990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은 성취가치(achievement values)가 지배적인 사회체계에서 더욱 커진다(Parsons, 1951). 현재 한국사회는 물질적 성공의 목표와 지위상승의 열망이 도덕적 삶의 목표를 압도할 만큼 큰데 비하여 규범의 타당성과 공정성은 크게 의심받는 상황(임희섭, 1995: 91-136, 269-277)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물질성취지향은 자칫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충동성을 자극하여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쉬운데(이길홍, 1990: 34) 위의 결과는 이를 확인해준다.

### 2) 부모의 성취압력과 변수들과의 관계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과 부적 상관이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성취압력을 가할수록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소원해지며 부모의 도덕성에 대한 자녀의 평가도 낮아진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가족의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도덕적(moral)' 인데 있지 않고 남보다 '뛰어난(excel)' 데 있으며(문용린, 1990: 108-112), 부모의 압력이 부모 자녀간의 친밀도를 약화시키고(김준호, 1990: 115),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공부이외의 훈육은 포기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합당한 규범과 태도의 훈육은 방치되고 있다(김희복, 1992: 212-213)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개인적 성취가 공동체의 이익에 연결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개인에게나 그가 속한 사회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훈육을 결여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성취압력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클수록 자녀가 부모의 도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기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거나 설사 받아들여지더라도 성취과정에서 부모 자녀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가족의 사회적 연대와 변수들과의 관계

가족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은 서로 정적 상관이 있다. 즉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일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공동체의 규범을 잘 전달하고,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의 도덕성을 높게 인식하며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관계의 도덕적 원리가 시민사회 전체에 일반화 되어 개인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이 이웃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돕는 방식으로 영위되어야만 진정한 시민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신용하·장경섭, 1996: 208)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은 가족의 사회적 연대 및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 부적 상관이 있고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나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상관이 없으며 셋째, 가족의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및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 정적 상관이 있다.

3.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대하여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별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sup>1)</sup>. <표 6>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으로서 총변량의 11.7%를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과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며, 이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면 설명력은 각각 17.4%, 20.5%로 증가한다. 가족의 사회적 연대 등 기타 변수들은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표 7>).

<표 6>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R <sup>2</sup>	Beta
부모의 도덕성	.117	.226**
가족의 물질주의	.174	-.224**
부모의 훈육	.205	.192*

\*P < .05 \*\*P < .01

<표 7>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대한 단계별 중회귀분석에서 제외된 변수들

	Beta in	t	Sig.
가족의 사회적 연대	.076	1.006	.316
가족의 응집성	-.069	-.883	.378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108	-1.377	.170
부모의 성취압력	.021	.285	.776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은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이 높을수록 둘째,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이 낮을수록 셋째, 공동체 규범에 대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훈육할수록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1) Tolerance값은 .927에서 .959이고 d=1.942로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및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본 회귀모형의 분석은 타당하다(강병서·김계수, 1997: 213, 319).

첫째,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친밀성과 가족의 응집성 등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수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이나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과는 관계가 있으나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이에 비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과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은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이나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 받지 못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공동체 규범에 대한 훈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모-자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가정교육의 문제는 애정결핍보다는 훈육과 덕육의 결핍에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의 자기통제 능력이 길러지지 않고 있다는 홍강의(1994)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beta=0.226$ ,  $p<.01$ )이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beta=0.192$ ,  $p<.05$ )보다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규범의 사회화에 있어서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보다는 부모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성의 교육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Lickona, 1985)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 즉 자신들에게 강조하는 윤리적,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점에 실망하며, 부모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한승희 외, 1992: 134-151)는 자녀에게 말로써 규범을 가르치기 전에 청소년 자녀의 눈에 비칠 부모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은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대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

다음으로, 그리고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방향은 반대이다( $\beta=-0.221$ ,  $p<.01$ ). 즉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은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정적 효과는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압도할 만큼 큰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성이 큰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체의 규범을 자녀에게 훈육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은 높아질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 가족이 추구하는 물질적 성공이라는 목표가 더 높은 윤희체계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한 부의 축적과 과시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배급주의적 성격을 띠어 전반적인 가치 혼란과 아노미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임희섭, 1995: 101-102)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가 단지 도구적 목표에 머물지 않고 어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압도하여(고범서, 1992: 31-33, 269-275) 더불어 삶의 참다운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동체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적 자질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족이나 부모에 의한 규범의 사회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시민적 자질 형성에 대한 가족과 부모의 영향을 특히 가족의 가치지향 및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과 행동모델로서의 부모 자신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족의 생활정도는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은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 및 부모의 도덕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었으나 이에 비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과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은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도덕성이며, 다음으로 가족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과 공동체 규범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 차례로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은 첫째 부모 자신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 보일수록, 둘째 가족이 삶의 우선적 목표를 물질적인 것의 추구에 두지 않을수록, 셋째 부모가 공동체 규범을 자녀에게 강조하고 격려할수록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상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형성에 가족이나 부모가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사회적 규범의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가족이 지나친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부모가 공동체 규범을 훈육하지 않아서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러한 부정적 행동양식을 보인다 해도 그것이 전적으로 부모 개인의 탓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도덕성 위기문제는 몇몇 개인의 잘못된 행위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의 핵심 요인인 계급지배, 자유계약 관계, 관료제의 특수한 역사적 정착과정 및 그 요소들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해체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한국의 자본주의는 표면적인 경제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질서에 대해서는 퇴행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 전반의 도덕성 위기는 이를 반영한 것 뿐(장경섭, 1993: 195)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존 사회체제의 합리성 혹은 공익성에 대한 신뢰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개인은 수동적 적응형태로서 그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즉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김진균, 1991)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 받기 힘들고, '법조차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임희섭, 1995, 271-272) 이 험한 세상에서 '착하고 생각이 바른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문용린, 1990: 111)는 인식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부모가 자녀에게 도덕적인 사회 규범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기존 사회체제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태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영향은 보다 거

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가족과 부모로 하여금 그러한 부정적인 행태를 나타내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분석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공동체이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여 새롭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초 공동체로서 사회개혁의 주체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다(이효재, 1994: 3-4).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61.0%)이 국민의식보다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윤리 도덕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무엇보다 철저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58.8%)는 조사 결과(동아일보 조사연구소 여론조사부, 1991)는 이를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부모의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재교육 및 청소년과 예비 부모들을 위한 부모 준비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강병서·김계수(1997),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 법문사, 213, 227-237.
- 2) 고범서(1992), 가치관 연구, 전남, 31-33, 269-275, 320-324.
- 3) 공미혜(1992),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가족학논집 제4집, 1-20.
- 4) 김재은(1994), 교육과 가족, 한국가족학회편,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5) 김준호(1994), 한국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제5권 1호.
- 6) \_\_\_\_\_(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제1권.
- 7) 김진균(1991),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2, 한길사.
  - 8) 김희복(1992), 학부모 문화 연구-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11-213.
  - 9) 노성호(1986), 사회계층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0) 동아일보사 여론조사부(1991), 국민생활·사회의 식 지표조사, 25-33.
  - 11) 문용린(1990),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그 회복을 위한 서장, 박동서 외, 사회변화와 윤리, 법문사, 108-126.
  - 12)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3)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6-71.
  - 14) 박종주·김성관·손충기·심대섭(1992),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공익성 실태 분석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2호, 33-48.
  - 15)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1989),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제연구소 연구보고 20.
  - 16) 송복(199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현대문학, 204-253.
  - 17)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 18) 양정국(198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과 불량집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 유안진·김연진(1990), 부모교육, 양서원.
  - 21) 유영주·이순형·홍숙자(1990), 가족발달학, 교문사.
  - 22) 윤진(1992), 가치관과 도덕성의 발달,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중앙정성출판사, 139-176.
  - 23) 이길홍(1990),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2호, 33-48.
  - 24) 이동원(1997),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의 확장,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8권 1호, 73-102.
  - 25) 이동원(1988), 현대사회의 부모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창지사, 35-49.
  - 26) 이미숙(1995), 현대 한국가족의 핵가족화 및 가치관 변화와 청소년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2호.
  - 27) \_\_\_\_\_(1993), 가족의 가치관 및 구조적 특성이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 가족학논집 5집, 19-42.
  - 28) 이성호(1996), 인성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신문화연구소 제7회 정신문화포럼, 1-18.
  - 29) 이윤호(1991), 한국 청소년 비행론, 법문사, 141-177.
  - 30) 이재창·최운실·정영애(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한국교육개발원.
  - 31) 이태원(1991), 청소년 비행의 원인,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3호, 90-112.
  - 32) 이효재(1994),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1-11.
  - 33) 임용우(1984), 가족체제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4) 임희섭(199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 35) \_\_\_\_\_(1986),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 문제에 관한 논설집 16, 5-27.
  - 36) 장경섭(1993), 한국사회의 지배질서와 도덕질서-퇴행적 자본주의하의 시민공동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161-201.
  - 37) 장상희(1992),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6집, 117-143.
  - 38) 장현섭(1995),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431-473.
  - 39) \_\_\_\_\_(1994),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신세대의 자녀교육, 한남재 외,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가족

- 문화총서2, 다산.
- 40) 전광문(1991), 청소년 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1호, 169-176.
  - 41) 전병재(1990), 한국사회병리의 현상과 그 원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편, 사회변화와 윤리, 법문사, 37-43.
  - 42) 정원식(1987),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118-121.
  - 43)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31-45.
  - 44) 정희경(1986), 청소년문제와 가정교육,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사회와 가족, 236-246.
  - 45)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 교문사, 359-365.
  - 46) 지영숙(1991),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제1보),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20집, 151-169.
  - 47) 차경수(1993), 청소년 건전육성과 가정의 역할,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문제 세미나: 가정과 청소년문제, 7-16.
  - 48)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147-160.
  - 49)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 50)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82), 한국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 51) 한승희·노혁·이혜연·맹영임(1992), 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9권 2호, 128-149.
  - 52) 홍강의(1994),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들, 한겨레신문, 1994. 6. 14.
  - 53)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54) Dishon T., Loeber, R., Stouthamer-Loeber, M.& Patterson, G. J.(1984), Skill deficits and Male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137-154.
  - 55) Lickona, T.(1985), Parents as Moral Educators, M. W. Berkowitz and F. Oser(eds.),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London: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56) Merton, R.K.(1959), "Social Structure and Anomie",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Y: Free Press, 125-133.
  - 57) Orrù, M.(1987), Anomie: History and Meaning, Mass.: Allen & Unwin (임희섭 역, 아노미의 사회학-희랍철학에서 현대사회학까지, 1990, 180-207).
  - 58)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8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inn.: Univ. of Minnesota.
  - 59) Parsons, T.(1951), The Social System, NY: Free Press, 258-325.
  - 60)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39-248.
  - 61) Tesson, G., Lewko, J. H. & Begelow, B. J.(1990), Adolescent Social Rule Usage in Family, Peer and Adult Relationships, P. A. Adler & P. Adler,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 Development vol.3,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Inc., 175-199.